

보천보전투에서 빛나게 과시된 주체의 령군술

안 영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대담무쌍한 령군술이 다시한번 과시되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8권 84페이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령활무쌍한 령군술로 수많은 군사작전과 전투들을 승리로 이끄시여 일제침략군에게 참패만을 안기시였다.

주체26(1937)년 6월 4일에 진행된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주체의 령군술이 빛나게 과시된 전투였다.

보천보전투에서 빛나게 과시된 주체의 령군술은 무엇보다도 적의 요진통을 주타격방향과 대상으로 정하고 타격시간을 합리적으로 선택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진공작전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주타격방향과 대상을 가장 정확히 정하시였다.

주타격방향과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거기에 타격을 집중하는것은 전쟁이나 전투의 전반적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더우기 적들의 항시적인 포위속에서 넓은 작전지대를 차지하고 끊임없이 기동하면서 전투와 행군, 정치사업 등을 진행해야 하는 유격전에서 조성된 정황에 맞게 주타격방향과 대상을 정확히 정하는것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주타격방향과 대상을 정확히 정하는것이 일반적인 군사행동의 원리이지만 크고작은 각이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전쟁실천에서 그것을 옳게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진공작전을 조직하시면서 온 나라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요진통인 혜산방면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혜산방면을 국내진공작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신것은 이 지대가 국내진출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곳이기때문이었다.

일제의 국경경비의 요충지대인 혜산방면은 대산림으로 백두산근거지와 잇닿아있으며 군사지리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 활동하기에 좋고 무장투쟁을 국내깊이까지 확대하는데 유리한 지대이며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이 조직되어 혁명군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 지대였다. 이 일대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도 많이 들어가 활동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타격방향과 함께 조성된 정황에 맞게 타격대상을 정확히 정하시였다.

국내진공을 위한 준비가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있던 시기 새로운 정황이 조성되였다.

그것은 무산지구에 진출한 4사부대가 적의 포위속에 든것이였다.

이런 정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의 어느 한 지점을 때려 두가지 목적을 단꺼번에 달성할것을 결심하시고 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보천보를 치는데서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진공이 두가지 효과를 다 낼수 있는 지점은 적의 력량이 집결되어있는 배개봉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고장이여서는 안되며 반대로 턱밑에 바짝 붙어있는 고장이여야 한다고 보시였다.

배개봉쪽에서 제일 가까운 요충지는 해산과의 중간지점에 있는 보천보였다.

보천보를 때려야 배개봉쪽에 집중되어있는 적들이 주력부대와 4사부대에 역포위될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포위추격전을 포기하고 이미 진출했던 계선에서 철수할수 있었다.

보천보를 치면 해산을 치는것 못지 않게 국내에 강한 충격을 줄수 있었다. 보천보는 당시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소재지로서 적들의 국경경비 제2선에 있는 중요군사요충지이며 국경일대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략탈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국내진공의 목적 역시 원만하게 달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조성된 정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국내진공작전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묘술을 찾아내심으로써 하나의 중심고리를 타격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전반적련쇄에 돌이킬수 없는 파멸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천보전투에서 타격시간도 정확히 선택하시였다.

전투에서 행동시간을 옳게 선택하고 리용하는것은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개시시간을 6월 4일 밤 10시로 선택하신것은 이 시간에 적들의 약점이 가장 많이 조성되였기때문이다.

이날은 장날이여서 주민들의 왕래가 번잡하였고 적들도 날이 어두워지자 해이되어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려놓고있었다. 특히 산림보호구에서는 시내의 《유지》들이 모여서 다룬데로 부임되어가는 주임님의 송별연회를 하느라고 술판을 벌려놓고있었다.

밤 10시는 적들이 극도로 안일해이된 시간이었다.

당시 일제침략군을 비롯한 적들은 일반적으로 저녁 9시~10시에 잠자리에 기여들군 하였는데 《토벌》과 훈련,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내몰리우다가 낮동안 쌓인 피로로 밤 10시면 깊은 잠에 폴아떨어지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이러한 약점을 리용하여 불의의 기습과 강한 화력전으로 전격전을 벌린다면 적들이 미처 정신차릴새없이 타격소멸하고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고 보시였다.

전투시간을 밤 10시로 선택한것은 전투가 끝난 다음 부대의 차후행동에도 매우 유리하였다.

보천보전투는 번개처럼 나타나 불의에 적을 치고 번개처럼 사라져야 하는 전격전이

였다.

압록강을 옆에 끼고있는 보천보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재빨리 강을 건너 적들의 국경경비망을 뚫고나갈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만일 날이 어둡기 전에 전투를 벌린다면 아군의 전투준비행동이 로출되어 전투시작 전부터 불리한 정황에 맞다들수도 있었다. 또 밤 10시보다 늦게 전투를 시작한다면 보천보주변에 있는 무산수비대, 혜산수비대, 국경특설경비대 등 압록강연안의 방대한 무력이 몰려들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원정부대를 포위할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차후 행동에 조성되는 엄중한 난관으로 될수 있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둠을 리용하여 곤장덕을 내려 습격대상물까지 은밀히 접근하여 적을 타격소멸하고 인민들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린 다음 날이 밝기 전에 압록강을 건너 구시산까지 철수할것을 타산하시고 보천보시가에 대한 습격전투시간을 밤 10시로 정하시였던것이다.

이처럼 적의 약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타격시간을 선택함으로써 적들이 미처 손쓸새없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었다.

보천보전투에서 빛나게 과시된 주체의 령군술은 다음으로 적을 혼란에 몰아넣고 불의성을 실현한것이다.

불의성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적에 대한 불의의 타격은 적을 당황하게 하고 공포속에 몰아넣어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가 맥을 출수 없게 하며 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게 한다.

더우기 수적, 기술적으로 강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유격전에서 불의성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진공작전에서 불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들의 국경경비진에 대혼란을 조성하고 돌파구를 뚫어놓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멀지 않아 국내진격을 단행하게 되리라는것은 적들에게 있어서도 기정사실로 되어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조선에 들어가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린다면 그것은 일본 본토를 들이치는것과 같은 굉장한 효과를 낼수 있었고 바로 이 점을 일제는 가장 두려워하고있었다.

일제는 이 시기 저들의 침략무력에서 기본주력을 조선과 만주에 배치하였으며 통화예 《토벌사령부》를 내오고 여기에 방대한 무력을 배속시켰다. 또한 조선강점군을 급격히 증강하는 한편 《물샬틈없는 국경경비》를 떠벌이면서 1936년에 이르러 국경지대에 4선으로 되는 삼엄하고 조밀한 경계진을 치고 경찰서, 경찰관주재소를 300여개나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수천명의 폭압무력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국경일대 군경들의 무장과 경비시설들을 더욱 보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적들의 국경경비진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고 돌파구를 뚫기 위하여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기묘한 전법을 령활하게 적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6(1937)년 3월 무송원정을 단행하시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장백지방에 집결되어있는 《토벌》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며 적들의 주의를 탄대

로 돌림으로써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적들이 《동장철벽》이라고 떠드는 국경경비진에 돌파구를 뚫기 위한 선행작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토대하여 서강회의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여러 부대로 나뉘어 국내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전개할데 대한 작전계획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작전적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내진출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임무를 받은 부대들은 도처에서 적들을 혼란에 몰아넣었다.

백두산동북부에 진출한 부대는 안도와 화룡일대에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안도현 진창부근전투에서 일제의 악질주구들로 꾸려진 리도선부대를 완전히 소멸하고 련이어 국내에 진출하여 붉은 바위와 상흥경수리일대의 적들을 족침으로써 적들의 국경경비진에 대혼란을 조성하였다.

한편 백두산서남부일대에 진출한 부대들은 여러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여 무송, 립강, 장백일대에서 적들을 련속 타격하였다.

이렇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여러 방향에서 적들을 치자 적들은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도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국경경비진에는 틈이 생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혼란에 빠진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전격전으로 적의 국경경비진을 뚫고들어가 적을 번개처럼 타격하고 번개처럼 빠져나가도록 하시였다.

일제가 전력을 다하여 강화하였던 국경경비진에 혼란을 조성하고 대담무쌍한 불의성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타격함으로써 국내진출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었다.

보천보전투에서 빛나게 파시된 주체의 령군술은 다음으로 군사적행동에 정치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것이다.

전쟁에서 전투의 의의는 군사적행동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행동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보천보전투의 목적은 국내의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자는데 있었다. 다시말하여 보천보전투는 단순히 적의 유생력량을 얼마 소탕하거나 군수물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조국해방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어 반일성전에 떨쳐나서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념을 안겨주는데서 기본은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조선의 혁명군대가 있다는 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용을 파시하고 국내인민들에게 보다 큰 충격을 줄수 있도록 군사적타격에 강력하고 신속한 선전선동을 밀접히 결합하도록 하시였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에서 일제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에 대한 기습과 함께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적극적인 방화를 배합하도록 하시였다.

물론 종전에 진행한 습격전투들에서도 적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을 불살라버린 경

우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적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내부를 혼란시켜 적들을 성과적으로 격멸소탕하거나 그것을 적들이 다시 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천보전투에서 일제의 통치기관들에 대한 방화는 거기에 배겨있는 적들을 성과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충격을 주고 국내진공작전의 여운을 주기 위해서였다.

보천보의 밤하늘을 밝히며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통하여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중추적핵심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이 존재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계속 승리하고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존재하는 한 조선은 반드시 독립되고야만한다는것과 함께 일제침략군이 결코 무적이 아니며 칼로 내리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짚검불이나 북데기처럼 타번지는 일종의 폐기물같은 존재라는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에 대한 습격과 때를 같이하여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정치공작소조원들은 보천보의 골목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포고》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격문과 삐라들을 붙이였다.

그리고 앞을 다투어 주재소 앞거리로 모여드는 군중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혁혁한 전과와 일제의 악랄한 파썸적 폭압과 략탈만행,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해설선전하였다.

인민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조국해방의 억센 신념을 안겨준 불멸의 화불로, 전민족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반일항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투쟁의 기치로 되었다.

이와 같이 보천보전투는 군사적타격과 대중정치사업을 유기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전투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 활발한 선전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립체적으로 맞물린 빈틈없는 작전으로 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주체의 령군술이 빛나게 과시된 항일혁명전쟁의 대표적인 전투였다.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올리신 보천보의 총성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민족재생을 안아온 불멸의 총성으로, 조국수호와 민족번영의 총성으로 이 땅우에 영원히 메아리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보천보전투, 령군술